

다비육종, 국내 최초 SEW 양돈생산체계 구축

3 Site 활용해 청정종돈 생산 개시

-홍 보 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site 형태의 격리조기이유(SEW : 양돈생산체계가 도입되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양돈사육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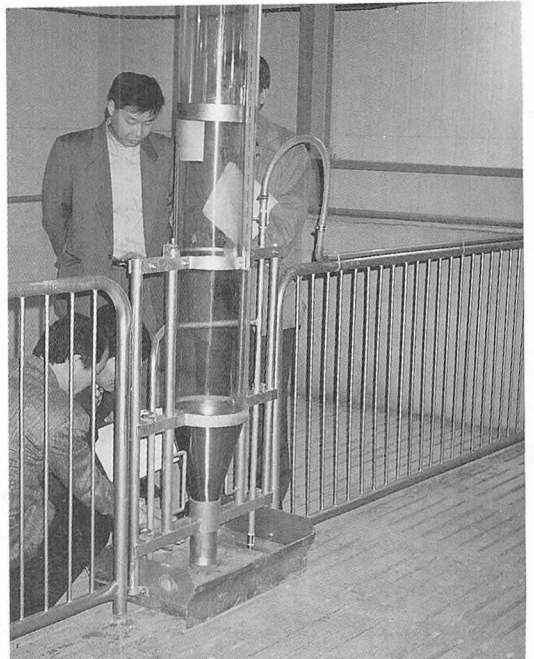
경기도 안성군 소재 종돈전문업체인 (주) 다비육종(대표 : 윤희진)이 국내 최초로 교배, 임신, 분만을 담당하는 모든 1,080두 규모의 번식농장과 각기 다른 장소의 자돈농장, 육성농장 등으로 구성된 3-site 형태의 격리조기이유 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비육종은, 지난 3월 26일 본회 노영한 전문이사과 김형균 소장, 양돈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돈농장 및 육성농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자돈농장 및 육성농장은 주간단위로 독립된 환기와 분뇨처리를 하면

서 올인 올아웃이 되도록 무창돈사로 지어졌고, 사육과정중은 물론 수송도중의 차단방역을 위해서 밀폐형으로 제작된 전용수송차량을 활용하고 있다.

(주)다비육종에서는 생후16~18일령에 자돈을 번식농장에서 자돈농장으로 격리조기이유하고, 자돈농장에서 7주간 사육후에 육성농장으로 다시 이동하여 사육하여 기존 돈군의 상재성 미생물로부터 자돈을 보호함은 물론 생산성향상과 생산비절감 등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다비육종의 경우 격리조기이유의 일반적인 장점과 함께 각종 돼지질병으로부터 종돈을 보호하여 우수한 청정종



▲ 육성사에 설치된 사료급이기



▲ 국내 최초로 설립된 SEW 육성돈사



▲ 테이프를 절단하는 양돈관계자들

돈의 생산공급을 통한 돼지 개량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도 청정종돈의 보급을 목적으로 이천GPP농장과 함께 자돈을 5일령에 이유하는 투약조기이유(MEW) 방식을 활용하여 청정돈군 조성에 성공한 바 있었던 (주)다비육종은, 격리조기이유 생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상당기간동안 해외정보의 수집, 전문가로부터 자문 그리고 수의과학연구소에서의 위생검사를 포함한 각종 사전시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의 양돈은 한 농장에서 번식에서 출하까지 이루어지는 일관사육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상재성질병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격리조기이유란 모돈에서 자돈으로 전파되는 질병은 조기이유로, 나이든 돼지에서 어린 돼지로 전파되는 질병은 올인올아웃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전파되는 질병은 철저한 격리를 통하여 차단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응용하여 조기에 이유한 자돈을 별도의 자돈농장에서 격리사육하므로써 각종 상재성 병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양돈생산기법이다. 이러한 사육방식은 질병예방을 통한 청정돈생산은 물론 위생도 증진을 통한 사육성적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돈생산체계를 사육단계별로 전문화, 표준화하고 대규모의 양돈협업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비육종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양돈산업이 각종 상재성 질병의 피해에서 벗어나서 돈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 및 양돈경영 합리화를 기하여 돈육시장 개방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격리조기이유방식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사육방식을 도입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 “다비육종은 청정종돈의 보급은 물론, 이러한 격리조기이유 생산체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양돈농가에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격리조기이유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한국 양돈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